

아버지의 양육참여 실태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아버지 양육참여의 영향*

The Effect of Paternal Involvement on the Self-Esteem in Early Adolescence*

김희화(Hee Hwa Kim)¹⁾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aternal involvement tendency and its effect on adolescent's self-esteem for boys and girls. Subjects were 607 1st and 2nd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in Busan.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scores on paternal involvement were influenced by the amount of time spent with parents, 5days work a week of father, flexibility of leaving work-time of mother, regularity of holiday work of mother as well as adolescents' and father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 For boys, self-esteem was influenced by all sub-scales of paternal involvement : the leisure-life, proffering information, academic support, everyday life, material support, discipline, and tradition-inheritance. For girls, self-esteem was influenced by leisure-life, proffering information, academic support, everyday life, and material supports.

Key Words : 아버지 양육참여(paternal involvement), 자아존중감(self-esteem), 아버지 역할(fathers roles).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혼 여성의 취업률 증가와 남녀역할 평등의식의 증대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수반되어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로 간주된 자녀양육을 아버지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권위주의적이고 정서적으로 가깝지 않았던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하고 양육적으로 변화해 가고는 있다(Morman & Floyd, 2002). 이처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증가하면서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역할로 간주된 생

* 본 연구는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03-C00168).

¹⁾ 부산대학교 생활환경대학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ee-Hwa Kim,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609-735, Korea E-mail : hwakim@pusan.ac.kr

계지원자, 훈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 이외에 자녀양육 과정에서 요구되는 아버지의 역할을 밝히려는 연구자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보고된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자녀 및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 양육참여의 실태를 밝히거나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양육참여 영역을 밝히려는 데 주된 관심을 두고 이뤄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여전히 미흡하였다.

첫째, 청년 초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 및 아동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연구(강관혜 · 相良順子, 1998; 최경순, 1991; 허선자, 1992) 및 아버지 양육참여와 유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 성 역할 발달, 친사회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 등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들(김광웅 · 이인수, 1998; 이영환, 2001; 양장애, 1999; 윤서영, 1999; 정현희 · 최경순, 1995; 최경순, 1992)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아동기에서 청년기로의 전환을 경험한 청년 초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국내 연구는 드물게 이뤄지고 있다. 청년 초기에 자녀의 생활에 대한 아버지의 관여는 이전보다 감소하지만(DeLuccie & Davis, 1991) 아버지와 자녀간 스트레스는 높고(조선화, 1998)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 역시 청년기 중에서도 청년 초기는 높으므로(Laursen, Coy, & Collins, 1998) 자녀양육 과정에서 아버지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기 쉽다. 이 시기의 아버지 양육참여의 실태나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중요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영역을 밝히는 연구는 청년 초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효율적 역할참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오늘날 부모 및 자녀의 변화하고 있는 일상을 고려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퇴근한 부모와 학교를 끝마친 자녀가 평일 저녁에 함께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한국 가정의 보편적 모습은 아니다. 아버지의 퇴근시간과 휴무일이 똑같지 않고 기혼 취업여성의 근무시간이 9 to 6 체제의 고정시간 근무보다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아(노동부, 2001) 직장을 가진 어머니의 퇴근 및 휴무일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중학생의 사교육 수강비율이 75.3%(한국교육개발원, 2003)로 높아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이 저녁시간에 이뤄지기가 어렵다. 이처럼 아버지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버지와 자녀간의 시·공간적 공유가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이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됨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연구되는 자녀와 아버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Pleck, 1997)이외에 아버지와 접촉유형, 부모와 보내는 시간, 아버지 직장의 주 5일제 실시여부, 부모님 직장의 근무여건(부모의 퇴근 유형 및 휴무방식)에 따른 아버지 양육참여의 정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현재 한국 가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실태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영역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생활만족도(Rosenberg, Schooler, Schoenbach, & Rosenberg, 1995), 우울(심희옥, 1997; Marcotte, Fortin, Potvin, & Papillon,

2002), 청소년의 긍정적·부정적 정서나 외로움(박선영·도현심, 1998; 정희옥, 2003), 청소년의 스트레스(Young & Rathge, 1990)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나타내는 중요한 변인이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영역을 밝힌 연구가 손머리(1997)에 의해 보고되었지만, 이 연구는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함으로써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 영역을 포괄하지 못한 척도를 사용한 제한점이 있다.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버지의 중요한 역할이 다르고(정문자, 1987)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평가와 잘못된 행동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차이가 나므로(Dix, Ruble, Grusec, & Nixon, 1986)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청소년기 이전의 아버지와 같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아버지의 양육참여 척도(김희화, 2005)를 이용하여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과 관련이 있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영역을 밝힘으로써 한국적 상황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아버지는 남아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양미경, 1996; 오미경, 1990; Huston, 1983; Ishii-Kuntz, 1994; Tucker, McHale, & Crouter, 2003) 부모와 청소년간의 관계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결과(Barnes & Olson, 1985; Shek, 2000)에 근거해 볼 때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영역을 밝히는 과정에서 성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아버지, 가정관련 변인 및 부모님 직장의 근무여건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차이를 살펴보고 청소년의 성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

육참여 영역을 밝히는 것이다. 아버지 양육참여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선정된 변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관련 변인으로 청소년의 성별, 학년, 형제성별구성, 형제수, 아버지와 접촉유형, 부모님과 평일 및 주말에 보내는 시간 등의 변인을 선정하였고, 아버지 관련 변인으로 아버지의 연령, 학력, 직업유형을 선정하였으며, 가정관련 변인으로는 어머니의 취업유무, 가정형편 변인을 선정하였다. 부모님 직장의 근무여건 변인으로 직장의 주 5일제 실시여부, 부모님 직장의 퇴근방식 및 휴무방식을 선정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아버지·가정관련 변인 및 부모님 직장의 근무여건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차이가 나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성별 자아존중감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영역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양부모를 모두 둔 중학교 1, 2학년 청소년 607명 이었다. 표본 추출을 위해 부산시 3개구의 6개 중학교와 양산시의 2개 중학교를 편의표집 하였고 각 학교의 1, 2학년 학급 중 교사의 협조가 가능한 학급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담임교사를 통해 수업시간과 자습시간에 질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배포된 질문지는 660부 이었고 회수된 질문지는 654부이었다. 이 중 양부모 중 한 분이

안계시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607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청소년의 성별비율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51.7%(N=314)이었고 여학생은 48.3%(N=294)이었다. 1학년은 49.9%(N=303)이었고 2학년은 49.8%(N=302)이었다. 형제성별구성에서 혼성인 경우가 67.5%(N=353)로 가장 높았다. 형제수에서는 2명인 경우가 68.7%(N=417)로 높게 나타났고 청소년의 아버지와 접촉유형은 지속형이 40.0%(N=243), 주말형이 41.5%(N=252)로 비

슷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과 4년제 대졸 이상이 40.5%(N=246), 37.1%(N=225)로 각각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유형은 생산/서비스직이 31.3%(N=190), 사무직이 24.4%(N=148)로 나타났다.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직장에 다니는 아버지의 비율이 26.2%(N=159)로 낮게 나타났다. 부모님 직장의 퇴근 방식의 경우 아버지는 불규칙적 퇴근이 48.4%(N=294), 어머니는 규칙적 퇴근이 56.9%(N=198)로 높게 나타났고 자유퇴근의 비율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3.1%(N=19), 4.9%(N=17)로 낮았다. 부모님 직장의 휴무방식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공휴일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구 분		
N(%)			N(%)		
청소년의 성별	남학생	314 (51.7)	청소년의 학년	1학년	303 (49.9)
	여학생	293 (48.3)		2학년	302 (49.8)
형제 성별구성	남형제	97 (18.7)	아버지직장 주5일제 실시여부	실시함	159 (26.2)
	여자매	72 (13.8)		실시안함	400 (65.9)
	혼성	351 (67.5)		무응답	48 (7.9)
형제수	외동이	67 (11.0)	모취업 유무	취업모	348 (57.3)
	2명	417 (68.7)		비취업모	230 (37.9)
	3명 이상	103 (17.0)		무응답	29 (4.8)
	무응답	20 (3.3)			
아버지와 접촉유형	지속형	243 (40.0)	가정형편	못산다	89 (14.7)
	평일형	15 (2.5)		보통이다	381 (62.3)
	주말형	252 (41.5)		잘산다	129 (21.3)
	간헐형	81 (13.4)		무응답	8 (1.3)
	무응답	16 (2.6)			
아버지의 학력	중졸 이하	44 (7.2)	부/모직장 퇴근방식	부 모	
	고졸	246 (40.5)		규칙적퇴근	257(42.3)/198(56.9)
	전문대졸	68 (11.2)		불규칙적 퇴근	294(48.4)/133(38.2)
	4년제대졸 이상	225 (37.1)		자유퇴근	19(3.1)/ 17(4.9)
	무응답	24 (4.0)		무응답	37(6.1)/ 0(0)
아버지의 직업유형	생산/서비스직	190 (31.3)	부/모직장 휴무방식	부 모	
	자영업	112 (18.5)		공휴일고정휴무	363(59.8)/192(55.1)
	사무직	148 (24.4)		불규칙 휴무	156(25.7)/ 99(28.4)
	전문직	116 (19.1)		휴무일 거의없음	69(11.4)/ 45(12.9)
	무응답	41 (6.7)		무응답	19(3.1)/ 12(3.6)

고정 휴무가 59.8%(N=363), 54.9%(N=192)로 높았다.

2. 측정도구

1) 아버지의 양육참여

부모특성에 대한 보고는 부모의 평가보다 자녀의 지각에 의한 보고가 일관성이 있고 객관적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최경순, 1991)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자녀의 보고에 의해 측정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김희화(2005)가 개발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아버지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개발된 아버지의 양육참여 척도로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것으로 7개 하위영역의 총 5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로써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varimax 방법으로 요인수를 7개로 지정하고 주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7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전체 설명량은 51.74%이었다. 이 과정에서 원래 척도 문항 중 1문항이 제외되었고 최종 선정된 문항수는 여가생활 11문항, 정보제공 6문항, 훈육 8문항, 학업지원 9문항, 전통 전수 7문항, 물적지원 6문항, 일상생활 6문항 등 총 53문항 이었다. 각 문항은 ‘전혀 안한다’(1점)부터 ‘자주 한다’(4점)까지의 4점 평정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음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척도의 각 하위영역에 대해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값을 구한 결과 .68~.90으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해 김희화(1998)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한국 청소년

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로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척도이다. 원 척도에서 자아존중감은 가정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교사관련 자아, 학업적 자아, 성격적 자아, 신체외모 자아, 신체능력 자아의 7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49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로써 척도의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varimax 방법으로 요인수를 7개로 지정하고 주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7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전체 설명량은 54.66%이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평정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점수화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척도의 각 하위영역에 대해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값을 구한 결과 .69~.89로 나타났다.

3) 아버지와 접촉 유형 및 부모님 직장의 근무여건

아버지와 접촉 유형 및 부모님 직장의 근무여건을 측정하기 위해 중학교 1학년 한 학급원을 대상으로 아버지 직장의 근무여건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학 전공교수 1인과 본 연구자가 적합한 분류기준을 토의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아버지와 접촉유형은 부자간의 직접적 상호작용과 관계없이 아버지와 평일이나 주말에 함께 접할 시간이 있는가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고 주로 해당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지속형’(평일 및 주말에 아버지와 같은 공간에 있는 시간이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 ‘평일형’(아버지와 주말보다 평일에 같은 공간에 있는 시간이 주로 많은 경우), ‘주말형’(아버지와 평일보다 주말에 같은 공간에 있는 시간이 주로 많은 경우), ‘간헐형’(평일, 주말 모두 아버지와 같은 공간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경우)으로 분류하

였다. 부모님 직장의 퇴근방식은 ‘규칙적 퇴근’ (대체로 정해진 저녁시간에 퇴근하는 경우), ‘불규칙적 퇴근’(퇴근시간이 불규칙적인 경우), ‘자유퇴근’(부모님 자유선택에 의해 퇴근이 되는 경우)으로 분류하고 해당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부모님 직장의 휴무 방식은 ‘공휴일 고정휴무’, ‘불규칙 휴무’, ‘휴무일 거의 없음’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해당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4) 부모님과 평일 및 주말에 보내는 시간 자신이 아버지 및 어머니와 평일과 주말에 가정이나 가정 밖에서 함께 있는 시간(상호작용 여부와 관계없이)을 기술하게 하였다.

3. 자료분석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사를 위해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값을 구하였고 구인타당도 검사를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t-test,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cheffé검증을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영역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실태

1) 청소년관련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 본 연구에서 선정된 청소년관련 변인 중 청소년의 성별, 학년, 형제성별구성, 형제수, 아버지와 접촉유형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부모님과 평일 및 주말에 보내는 시간과 아버지 양육참여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표 2>에서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실태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일상생활($t=-3.42, p<.001$), 전통전수($t=3.65, p<.001$), 정보제공($t=2.64, p<.05$), 학업지원($t=2.73,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아버지와 일상생활을 많이 하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아버지로부터 전통전수, 정보제공, 학업지원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년별 비교결과 일상생활($t=2.07, p<.05$), 학업지원($t=2.39, p<.05$), 훈육($t=2.64,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1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가 2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보다 일상생활, 학업지원, 훈육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제성별구성에 따라서는 아버지 양육참여 중 일상생활($F=3.09, p<.05$), 전통전수($F=8.68, p<.001$), 여가생활($F=5.04, p<.01$), 정보제공($F=5.71, p<.01$), 학업지원($F=3.83,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위집단간 평균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아버지가 다른 청소년의 아버지보다 전통전수와 정보제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의 경우 남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아버지가 혼성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아버지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수에 따른 아버지 양육참여의 차이는 물질지원($F=4.84, p<.01$), 전통전수($F=3.75, p<.05$), 정보제공($F=5.18, p<.01$), 훈육($F=3.36, p<.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집단간 평균차 검증 결과 외동이인 경우는 형제가 3명 이상인 청소년의 아버지보다 전통전수와 정보제공을 아버지로부터 많이 받는 것으

〈표 2〉 청소년관련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평균차 검증

		물적지원	일상생활	전통전수	여가생활	정보제공	학업지원	훈 육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성 별	남	17.33 (4.19)	15.46 (3.27)	14.44 (4.33)	20.71 (6.14)	12.20 (4.59)	23.95 (6.77)	19.47 (5.48)
	여	17.97 (4.66)	16.41 (3.51)	13.20 (3.90)	19.77 (6.12)	11.22 (4.51)	22.43 (6.87)	19.48 (5.78)
	t 값	-1.76	-3.42***	3.65***	1.85	2.64*	2.73**	-.03
학 년	1학년	17.73 (4.28)	16.22 (3.21)	13.84 (4.23)	20.54 (6.07)	11.76 (4.51)	23.88 (6.55)	20.12 (5.52)
	2학년	17.55 (4.59)	15.64 (3.61)	13.82 (4.12)	19.94 (6.20)	11.67 (4.64)	22.54 (7.10)	18.88 (5.72)
	t값	.50	2.07*	.03	1.18	.24	2.39*	2.64**
형제 성별 구성	남형제	17.43 (4.15)	15.81 (2.84)	15.12 a (4.39)	21.66 a (6.52)	12.86 a (4.64)	24.73 (6.59)	19.80 (5.09)
	여자매	18.32 (4.78)	16.73 (3.64)	13.15 b (3.74)	20.86 ab (6.29)	11.62 b (4.81)	22.89 (6.59)	19.31 (5.16)
	혼 성	17.60 (4.43)	15.79 (3.50)	13.56b (4.09)	19.73 b (5.95)	11.41 b (4.46)	22.87 (6.87)	19.52 (5.91)
	F값	1.30	3.09*	8.68***	5.04**	5.71**	3.83*	.35
형제수	외동이	17.77 ab (4.79)	16.30 (3.69)	14.62 a (4.11)	21.63 (6.46)	13.00 a (5.02)	24.03 (6.64)	18.55 (4.72)
	2명	17.96 a (4.29)	16.00 (3.34)	13.95 ab (4.25)	20.36 (6.04)	11.88 ab (4.67)	23.48 (6.87)	19.95 (5.59)
	3명 이상	16.45 b (4.62)	15.54 (3.55)	12.93 b (3.65)	19.54 (6.52)	10.72 b (3.77)	22.18 (6.91)	18.68 (6.08)
	F값	4.84**	1.09	3.75*	2.22	5.18**	1.86	3.36*
부와 접촉 유형	지속형	18.43 (4.30)	17.04 a (3.26)	14.62 (4.57)	22.02 a (6.53)	12.65 a (4.69)	24.58 a (7.06)	20.80 a (5.79)
	평일형	16.50 (3.86)	14.47 b (3.72)	12.47 (3.52)	19.13 ab (4.66)	9.07 b (2.60)	20.57 ab (6.61)	18.07 ab (5.24)
	주말형	17.58 (4.33)	15.59 ab (3.17)	13.59 (3.87)	19.77 ab (5.78)	11.58 ab (4.59)	23.18 ab (6.46)	19.09 ab (5.48)
	간헐형	15.94 (4.69)	13.97 b (3.49)	12.34 (3.37)	16.71 b (4.15)	9.96 b (3.68)	20.03 b (6.30)	17.14 b (4.94)
	F값	7.00***	20.38***	7.30***	17.03***	9.32***	9.89***	9.85***

* $p < .05$ ** $p < .01$ *** $p \leq .001$

† a, b는 Scheffé의 사후 검증($p < .05$)결과를 나타냄.

로 나타났다. 형제가 2명인 경우가 3명 이상인 경우보다 물적지원을 아버지로부터 많이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접촉유형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비교한 결과 아버지 양육참여의

〈표 3〉 청소년이 부모님과 평일/주말에 보내는 시간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간의 상관계수

		물적지원	일상생활	전통전수	여가생활	정보제공	학업지원	훈육
아버지와 보내는시간	평일	-.01	.08	.03	.06	.03	.06	.10*
	주말	.06	.19*	.07	.19***	.06	.12**	.11*
어머니와 보내는시간	평일	.05	.11*	.01	.12**	.11**	.06	.05
	주말	.12**	.16***	.06	.16***	.12**	.12**	.10*

* $p < .05$ ** $p < .01$ *** $p < .001$

모든 영역 즉 물적지원($F=7.00, p<.001$), 일상생활($F=20.38, p<.001$), 전통전수($F=7.30, p<.001$), 여가생활($F=17.03, p<.001$), 정보제공($F=9.32, p<.001$), 학업지원($F=9.89, p<.001$), 훈육($F=9.85,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집단간 평균차 검증을 위해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지속형 집단의 청소년이 간헐형 집단의 청소년보다 일상생활, 여가생활, 정보제공, 학업지원, 훈육에서 아버지와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지속형 집단의 청소년이 평일형 집단의 청소년보다 아버지와 일상생활 및 정보제공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의 결과에서 청소년이 아버지와 평일에 보내는 시간은 아버지 양육참여 영역 중 훈육($r=.10, p<.05$)과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와 주말에 보내는 시간은 여가생활($r=.19, p<.001$), 일상생활($r=.19, p<.05$), 학업지원($r=.12, p<.01$), 훈육($r=.11, p<.05$)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및 주말에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영역 중 일상생활(평일 : $r=.11, p<.05$, 주말 : $r=.16, p<.001$ 이하 동일순서), 여가생활($r=.12, p<.01, r=.16, p<.001$), 정보제공($r=.11, p<.01, r=.12,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어머니와 주말에 보내는 시간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영역 중 학업지원($r=.12,$

$p<.01$), 물적지원($r=.12, p<.01$) 및 훈육($r=.10, p<.05$)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와 청소년이 평일에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버지는 훈육을 많이 하게 되고 주말에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버지는 여가생활, 학업지원, 훈육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이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 여러 영역에서 이뤄지기 쉬움을 알 수 있다.

2) 아버지관련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 아버지관련 변인으로 아버지의 연령, 학력, 직업유형을 선정하였고 이들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에 의하면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비교한 결과 전통전수($F=2.60, p<.05$)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집단간 평균차 검증 결과 40세 이하의 아버지 집단이 다른 연령대의 아버지보다 전통전수를 적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아버지 양육참여를 비교한 결과 훈육을 제외한 물적지원($F=8.45, p<.001$), 일상생활($F=3.83, p<.01$), 전통전수($F=3.78, p<.05$), 여가생활($F=16.75, p<.001$), 정보제공($F=18.80, p<.001$), 학업지원($F=11.77,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

〈표 4〉 아버지관련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평균차 검증

		물적지원	일상생활	전통전수	여가생활	정보제공	학업지원	훈육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연령	40세 이하	17.31 (4.28)	16.29 (3.85)	12.29 b (3.22)	19.97 (5.67)	11.23 (4.39)	23.29 (5.74)	19.47 (3.78)
	41-45세	17.95 (4.48)	16.04 (3.40)	13.93 a (4.18)	20.58 (6.38)	11.91 (4.76)	23.33 (6.90)	19.54 (5.63)
	46세 이상	17.19 (4.36)	15.67 (3.39)	13.94 a (4.26)	19.77 (5.81)	11.51 (4.29)	23.02 (6.95)	19.37 (5.88)
	F값	2.04	1.76	2.60*	1.18	.74	.14	.06
학력	중졸 이하	15.26 b (4.07)	14.24 b (3.11)	13.02 (3.58)	16.56 c (5.40)	10.07 b (3.14)	21.12 b (6.46)	17.73 (5.21)
	고졸	17.30 a (4.40)	16.11 a (3.50)	13.48 (3.74)	19.03 bc (5.47)	10.67 b (3.84)	21.82 b (6.54)	19.60 (5.60)
	전문대졸	17.34 a (4.50)	15.94 a (3.34)	13.51 (3.88)	21.03 ab (4.90)	11.28 b (3.93)	23.08 ab (6.55)	18.79 (5.00)
	4년제대졸 이상	18.58 a (4.28)	16.09 a (3.39)	14.59 (4.65)	22.17 a (6.67)	13.50 a (5.26)	25.26 a (7.01)	19.91 (5.95)
	F값	8.45***	3.83**	3.78*	16.75***	18.80***	11.77***	2.09
직업 유형	생산/서비스직	16.87 b (4.22)	15.86 (3.07)	13.18 (3.61)	18.42 b (4.76)	10.38 b (3.58)	21.92 b (6.66)	19.22 (5.67)
	자영업	18.12 ab (4.57)	16.35 (4.05)	14.31 (4.61)	20.03 ab (6.37)	12.33 a (4.93)	23.15 ab (6.71)	19.56 (5.69)
	사무직	18.50 a (4.40)	16.24 (3.28)	14.16 (4.11)	21.79 a (6.39)	12.70 a (4.88)	24.65 a (6.84)	19.60 (5.51)
	전문직	17.65 ab (4.32)	15.53 (3.33)	14.37 (4.57)	21.91 a (6.61)	12.75 a (4.91)	24.39 a (6.81)	20.03 (5.82)
	F값	4.26**	1.50	2.96*	11.90***	10.39***	5.53***	.49

* $p < .05$ ** $p \leq .01$ *** $p \leq .001$

† a,b,c는 Scheffé의 사후 검증($p < .05$)결과를 나타냄.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집단간 평균차 검증 결과 4년제대졸 이상의 아버지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아버지보다 정보제공 및 학업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졸 이하의 아버지는 그 이상의 학력의 가진 아버지보다 물적지원 및 일상생활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은 중졸 이하의 아버지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아버지보다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아버지의 직업유형에 따라서는 물적지원($F=4.26, p < .01$), 전통전수($F=2.96, p < .05$), 여가생활($F=11.90, p < .001$), 정보제공($F=10.39, p < .001$), 학업지원($F=5.53, p \leq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위집단간 평균차 검증결과 생산/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는 사무직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보다 여가생활 및 학업지원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자영업, 사

<표 5> 가정관련 변인에 따른 아버지 양육참여의 평균차 검증

		물적지원	일상생활	전통전수	여가생활	정보제공	학업지원	훈육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모취업 유무	비취업모	17.61 (4.40)	15.85 (3.51)	13.93 (4.23)	20.05 (6.31)	11.77 (4.76)	23.21 (6.93)	19.52 (5.66)
	취업모	17.98 (4.43)	16.07 (3.23)	13.66 (4.17)	20.64 (5.98)	11.83 (4.38)	23.55 (6.76)	19.58 (5.60)
	t 값	-0.98	-0.76	0.75	-1.11	-0.15	-0.58	-0.14
가정 형편	못사는편	16.53 b (4.54)	15.15 (3.62)	13.22 b (3.99)	17.87 c (5.84)	10.42 b (4.51)	21.15 b (7.11)	18.99 b (5.77)
	보통	17.58 ab (4.41)	16.00 (3.35)	13.55 b (3.88)	19.96 b (5.75)	11.49 b (4.26)	22.95 b (6.56)	19.19 ab (5.54)
	잘사는 편	18.72 a (4.21)	16.19 (3.50)	15.13 a (4.83)	22.76 a (6.74)	13.33 a (5.11)	25.50 a (6.93)	20.71 a (5.74)
	F값	6.66***	2.63	8.21***	17.95***	12.20***	11.74***	3.82*

* $p < .05$ ** $p < .01$ *** $p \leq .001$

† a,b는 Scheffé의 사후 검증($p < .05$)결과를 나타냄.

무직, 전문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보다 자녀에 대한 정보제공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적지원의 경우 사무직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생산/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잘사는 가정의 아버지가 못 살거나 보통인 가정의 아버지보다 전통전수, 여가생활, 정보제공, 학업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사는 가정의 아버지가 못사는 가정의 아버지보다 물적지원과 훈육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정관련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 가정관련 변인인 모의 취업유무 및 가정형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표 5>에서 모의 취업유무에 따른 아버지 양육참여의 수준은 모든 양육참여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정형편에 따라서는 물적지원($F=6.66, p \leq .001$), 전통전수($F=8.21, p < .001$), 여가생활($F=17.95, p < .001$), 정보제공($F=12.20, p < .001$), 학업지원($F=11.74, p < .001$), 훈육($F=3.82, p <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집단간 평균차 검증을 실시한

4) 부모님 직장의 근무여건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

부모님 직장의 근무여건인 아버지 직장의 주 5일제 실시여부, 아버지 및 어머니 직장의 퇴근 방식 및 휴무방식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표 6>에 의하면 아버지 직장의 주 5일제 실시여부에 따른 아버지 양육참여의 수준은 여가생활($t=2.46, p < .05$)과 정보제공($t=2.04, p <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 5일 근무제 직장을 다니는 아버지가 그렇지 않은 아버지보다 여가생활과 정보제공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아버지 직장의 퇴근 유형에 따른 양육참여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집단간 평균차 검
 여가생활($F=3.10, p<.05$)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증에서 집단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어머

〈표 6〉 부모님 직장의 근무여건에 따른 아버지 양육참여의 평균차 검증

		물적지원	일상생활	전통전수	여가생활	정보제공	학업지원	훈육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부직장 주5일제 실시 여부	실시함	18.34 (4.50)	16.59 (3.11)	14.06 (4.19)	22.04 (6.33)	12.75 (5.01)	23.80 (7.04)	19.97 (5.31)
	실시안함	17.69 (4.64)	15.91 (3.39)	13.50 (3.79)	20.12 (5.93)	11.53 (4.57)	22.49 (6.71)	19.10 (5.42)
	t 값	1.12	1.65	1.16	2.46*	2.04*	1.51	1.29
부 직장 퇴근 방식	규칙적퇴근	17.77 (4.58)	16.19 (3.35)	13.88 (4.42)	20.74 (6.38)	12.06 (4.75)	23.60 (7.01)	19.85 (5.70)
	불규칙적 퇴근	17.59 (4.42)	15.64 (3.43)	13.65 (4.00)	19.72 (5.98)	11.43 (4.50)	22.86 (6.86)	19.01 (5.67)
	자유퇴근	17.68 (3.54)	17.11 (3.11)	14.95 (3.10)	22.56 (6.20)	12.68 (4.46)	25.33 (4.92)	21.21 (4.76)
	F 값	.10	2.92	.94	3.10*	1.66	1.58	2.44
모 직장 퇴근 방식	규칙적퇴근	17.93 (4.45)	15.97 b (3.43)	14.02 (4.34)	20.23 b (6.47)	12.19 ab (4.87)	23.41 ab (6.77)	19.72 (5.95)
	불규칙적 퇴근	17.14 (4.32)	15.44 b (3.57)	13.64 (4.11)	19.36 b (5.92)	10.95 b (4.42)	22.53 b (7.09)	19.15 (5.30)
	자유퇴근	18.38 (3.77)	17.94 a (2.72)	15.56 (3.54)	24.13 a (6.19)	13.75 a (5.09)	26.88 a (6.11)	20.63 (4.44)
	F 값	1.52	3.94**	1.54	4.04**	4.18*	2.99*	.71
부 직장 휴무 방식	공휴일 고정휴무	17.76 (4.41)	16.06 (3.31)	13.88 (4.16)	20.84 (6.43)	11.96 (4.72)	23.57 (6.83)	19.70 (5.60)
	불규칙휴무	17.54 (4.52)	15.88 (3.59)	13.87 (4.26)	19.58 (5.62)	11.59 (4.40)	22.63 (6.91)	18.77 (5.78)
	휴무일 거의없음	17.60 (4.47)	15.85 (3.59)	13.65 (4.05)	19.40 (5.66)	11.24 (4.45)	22.98 (6.89)	19.57 (5.44)
	F 값	.15	.21	.09	3.03*	.91	1.06	1.49
모 직장 휴무 방식	공휴일 고정휴무	17.73 (4.50)	16.12 (3.49)	14.18 (4.14)	21.13 a (6.97)	11.99 (4.83)	23.59 (7.13)	20.09 (5.88)
	불규칙휴무	17.59 (4.26)	15.71 (3.33)	13.78 (4.07)	19.22 ab (5.14)	11.87 (4.70)	23.64 (6.25)	19.25 (5.27)
	휴무일 거의없음	17.11 (4.31)	15.17 (3.92)	12.94 (3.77)	18.44 b (5.06)	10.62 (3.66)	21.57 (6.35)	19.02 (5.37)
	F 값	.38	1.56	1.87	5.33**	1.70	1.83	1.14

* $p \leq .05$ ** $p < .01$ *** $p < .001$

† a,b는 Scheffé의 사후 검증($p < .05$)결과를 나타냄.

니 직장의 퇴근 방식에 따라서는 일상생활(F=3.94, $p<.01$), 여가생활(F=4.04, $p<.01$), 정보제공(F=4.18, $p<.01$), 학업지원(F=2.99, $p\leq.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위집단간 평균차 검증을 위해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가 자유퇴근을 할 경우, 아버지의 일상생활 및 여가생활이 다른 두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아버지의 학업지원 및 정보제공도 어머니가 불규칙적 퇴근을 하는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휴무방식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여가생활(F=3.03,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하위집단간 평균차 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휴무방식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 중 여가생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5.33, $P<.01$). 사후 검증 결과 어머니의 직장이 공휴일 고정휴무일 경우 휴무일이 거의 없는 경우보다 아버지의 여가생활참여가 높았다.

2. 청소년의 성별 자아존중감에 대한 아버지 양육참여의 영향

1)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아버지 양육참여 영역의 상대적 영향력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영역을 밝히기 전에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련성 및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먼저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구성하는 모든 영역들은 성격적 자아를 제외한 나머지 자아존중감 영역과 상관관계수 .15~.45($p<.05 \sim p<.001$)의 범위에서 정적인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립변인들 간의 상호 상관관계수는 다중공선성을 문제로 볼 수 있는

<표 7>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아버지 양육참여 영역의 다중회귀분석

자아존중감 영역	양육참여 영역	β	R ²	F
가정적 자아	물적지원	.30***	.28	34.81***
	정보제공	.20**		
	일상생활	.15*		
친구관련 자아	여가생활	.23***	.27	32.59***
	학업지원	.24***		
	전통전수	.18**		
교사관련 자아	여가생활	.23***	.13	20.45***
	학업지원	.20***		
학업적 자아	정보제공	.35***	.22	39.04***
	여가생활	.17**		
신체외모 자아	학업지원	.23***	.14	22.98***
	여가생활	.22***		
신체능력 자아	여가생활	.23***	.13	20.27***
	훈육	.20***		

* $p<.05$ ** $p\leq.01$ *** $p\leq.001$

상관계수 값인 .80(김석우·최용석, 2001; 김해식, 1987)보다 낮은 .40~.65($p<.00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격적 자아를 제외한 자아존중감 각 하위영역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아버지 양육참여 영역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stepwise 분석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표 7>의 결과에 의하면 가정적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양육참여 영역은 물적지원($\beta=.30$, $p<.001$), 정보제공($\beta=.20$, $p\leq.01$), 일상생활($\beta=.15$, $p<.05$)로 나타났고 이 변인들이 가정적 자아 변량의 2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련 자아에는 여가생활($\beta=.23$, $p\leq.001$), 학업지원($\beta=.24$, $p<.001$), 전통전수($\beta=.18$, $p<.01$)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변인들이 친구관련 자아 변량을 2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련 자아에는 여가생활($\beta=.23$, $p<.001$)과 학

업지원($\beta=.20, p<.0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변인들이 교사관련 자아의 1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양육참여 영역은 정보제공($\beta=.35, p<.001$), 여가생활($\beta=.17, p<.01$)로 나타났고 이 변인들이 학업적 자아 변량의 2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외모 자아에는 학업지원($\beta=.23, p<.001$), 여가생활($\beta=.22, p<.0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신체외모 자아에 대한 설명변량은 14%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능력 자아에는 여가생활($\beta=.23, p<.001$)과 훈육($\beta=.20, p=.0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변인들이 신체능력 자아변량의 1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아버지 양육 참여 영역의 상대적 영향력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영역을 밝히기 전에 아버지 양육참여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련성 및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먼저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정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교사관련 자아, 학업적 자아, 신체외모 자아는 아버지 양육참여 모든 영역과 상관계수 .16~.45($p<.01 \sim p<.001$)의 범위에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격적 자아는 훈육과 상관계수 -.18($p<.01$)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능력 자아는 물적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아버지 양육참여 영역과 상관계수 .13~.22($p<.05 \sim p<.001$)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들 간의 상호 상관계수는 다중공선성을 문제로 볼 수 있는 상관계수 값인 .80(김석우·최용석, 2001; 김해식, 1987)보다 낮은 .32~.63($p<.001$)으로 나타났다.

<표 8>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아버지 양육참여 영역의 다중회귀분석

자아존중감 영역	양육참여 영역	β	R ²	F
가정적 자아	물적지원	.24**	.28	33.35***
	여가생활	.21***		
	정보제공	.20**		
친구관련 자아	정보제공	.23***	.10	15.03***
	일상생활	.14*		
교사관련 자아	일상생활	.17*	.07	10.53***
	정보제공	.15*		
학업적 자아	정보제공	.24***	.17	26.42***
	여가생활	.22**		
신체외모 자아	학업지원	.20*	.10	13.81***
	정보제공	.15*		
신체능력 자아	일상생활	.22***	.05	13.06***

* $p<.05$ ** $p<.01$ *** $p<.001$

자아존중감 각 하위영역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아버지 양육참여 영역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stepwise 분석에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성격적 자아에 대한 아버지 양육참여 영역의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시하지 않았다.

<표 8>의 결과에 의하면 가정적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여가생활($\beta=.21, p<.01$), 물적지원($\beta=.24, p<.001$), 정보제공($\beta=.20, p<.01$)으로 나타났고 이 변인들이 가정적 자아 변량의 2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련 자아에는 정보제공($\beta=.23, p<.001$), 일상생활($\beta=.14, p<.05$) 그리고 교사관련 자아에는 일상생활($\beta=.17, p<.05$), 정보제공($\beta=.15, p<.05$)이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각각 자아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설명변량은 각각 10%와 7%이었다. 학업적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영역은 정보제공($\beta=.24, p<.001$),

여가생활($\beta=.22, p<.01$)로 나타났고 이 변인들이 학업적 자아변량의 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외모 자아에는 학업지원($\beta=.20, p<.05$)과 정보제공($\beta=.15, p<.05$), 신체능력 자아에는 일상생활($\beta=.22, p<.001$)이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각각 자아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설명변량은 10%와 5%이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아버지, 가정관련 변인 및 부모님 직장의 근무여건에 따른 아버지 양육참여의 차이를 살펴보고 청소년의 성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영역을 밝히는 것이었다.

중학교 1, 2학년 남녀 청소년 607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문제에 따라 t-test, 일원변량분석과 사후 분석으로 Scheffé 검정,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 및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1. 요약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관련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아버지와 일상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아버지로부터 전통전수, 정보제공, 학업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이 2학년보다 아버지와 일상생활을 많이하고 학업지원 및 훈육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형제가 있는 청소년은 아버지로부터 전통전수와 정보제공을 많이 받고 여가생활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가 3명 이상인 청소년은 외동보다 아버지로부터 전통전수, 정보제공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가 2명인 청소년이 3명 이상인 경우보다 물적지원을 아버지로부터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접촉유형이 지속형인 청소년이 간헐형인 청소년보다 일상생활, 여가생활, 정보제공, 학업지원, 훈육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형 청소년은 평일형 청소년보다도 일상생활 및 정보제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아버지와 평일에 보내는 시간은 훈육과만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와 주말에 보내는 시간은 여가생활, 일상생활, 학업지원, 훈육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및 주말에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영역 중 일상생활, 여가생활, 정보제공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와 주말에 보내는 시간은 아버지의 물적지원, 학업지원 및 훈육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관련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40세 이하의 아버지는 그 이상 연령대의 아버지보다 전통전수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의 아버지는 고졸 이상의 아버지보다 물적지원 및 일상생활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 한 아버지가 여가생활, 자녀에 대한 정보제공 및 학업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는 사무직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보다 자녀와 여가생활 및 학업지원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자영업, 사무직, 전문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보다 자녀에 대한 정보제공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형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차이가 나타났고 모의 취업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사는 가정의 아버지가 못 살거나 보통인 가정의 아버지보다 전통전수, 여가생활, 정보제공, 학업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사는 가정의 아버지가 못사는 가정의 아버지보다 물적지원과 훈육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 5일제 실시를 하는 직장에 다니는 아버지가 그렇지 않은 아버지보다 여가생활 및 정보제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직장의 퇴근방식 및 휴무방식에 따라 아버지 양육참여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아버지 직장의 퇴근방식 및 휴무방식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자유퇴근을 할 경우 규칙적 퇴근 및 불규칙적 퇴근을 하는 경우보다 아버지의 일상생활 및 여가생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불규칙적 퇴근을 하는 경우보다 아버지의 학업지원 및 정보제공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장이 공휴일 고정휴무인 경우 어머니가 휴무일이 거의 없는 경우보다 아버지의 여가생활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대한 아버지 양육참여 영역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가정적 자아에는 물적지원, 정보제공, 일상생활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관련 자아에는 여가생활, 학업지원, 전통전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련 자아에는 여가생활과 학업지원이 학업적 자아에는 정보제공과 여가생활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외모 자아에는 학업지원, 여가생활이 그리고 신체능력 자아에는 여가생활과 훈육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

우, 가정적 자아에는 여가생활, 물적지원 및 정보제공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관련 자아에는 정보제공과 일상생활이, 교사관련 자아에는 일상생활과 정보제공 그리고 학업적 자아에는 정보제공과 여가생활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외모 자아에는 학업지원과 정보제공이 신체능력 자아에는 일상생활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논의 및 결론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아버지는 남아에게 전통전수, 정보제공, 학업지원을 많이 하는 반면 여아와는 일상생활만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 및 형제가 남형제로 구성된 경우 아버지의 전통전수, 여가생활, 정보제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다음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아버지는 여아보다 남아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한다는 연구결과(Ishii-Kuntz, 1994; Tucker 등, 2003) 및 여아보다 남아의 양육에 아버지가 더 많이 참여한다는 결과(김광용 · 이인수, 1998; 양미경, 1996; 오미경, 1990)와 일치하는 것으로써 청소년 자녀를 둔 아버지는 자녀가 남아이거나 남형제로 구성될 경우 다양한 양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제시해 준다. 이는 아버지는 아들의 모델이 되어야 하고 성역할 사회화 및 기술을 가르치고, 남성적 관심을 공유해야 한다는 사회적 신념(Culp, Schadle, Robinson, & Culp, 2000)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아를 둔 아버지는 일상생활 참여 중심으로 양육에 참여하지만 남아를 둔 아버지는 전통을 전달하고 여가를 보내고 정보를 제공하는 적극적 지원자로서의 양육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남녀의 사회화 과정

에서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여아를 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양육참여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일상생활, 학업지원, 훈육이 1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기부터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수행을 비교하여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감소함을 밝힌 결과(조선화, 1998)와 유사한 것으로써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상생활과 학업지원 그리고 훈육부분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버지의 학력이 낮거나 직업이 생산/서비스적인 경우, 그리고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 일상생활 및 훈육을 제외한 다른 영역들에서 아버지 양육참여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 교육수준 및 가정의 수입에 관심을 두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나 행동을 밝히려는 선행 연구(강란해, 2000; 김보금·송순, 2002; Ahmeduzzaman & Roopnarine, 1992; Barnett & Baruch, 1987; Cooney, Pederson, Indelicato, & Palkovitz, 1993; Flouri & Buchanan, 2003)는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 자녀를 둔 한국 가정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이들 변인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훈육 및 일상생활 참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일반 가정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보편적 역할상임을 시사해 준다.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양육참여를 비교한 결과 40세 이하인 아버지의 전통수준만 낮게 나타남으로써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은 아버지의 연령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평일과 주말에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아버지의 양육참여 영역 중 다양한 영역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직장 휴무방식보다 어머니 직장의 휴무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어머니 직장의 퇴근방식에 따라 여가생활을 비롯한 다양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난 결과를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양육참여나 학업에 대한 관심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결정한다(Cabrera, Tamis-Lemonda, Bradley, Hofferth, & Lamb, 2000; Flouri & Buchanan, 2003)는 결과와 연관시켜 볼 때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 역할을 대신해 주는 적극적 참여라기보다는 어머니가 함께 있을 경우에 촉진되는 수동적 참여자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넷째, 아버지 직장의 퇴근방식 및 휴무방식에 따른 아버지 양육참여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재 아버지 직장의 퇴근방식 및 휴무방식과 같은 근무조건이 아버지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써 기여하는 바는 적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아버지와 접촉이 지속형이거나 주말형일 경우 그리고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버지 양육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근무조건보다는 부자간의 시·공간적 공유가 중요함을 강조해 준다.

한편,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직장에 다니는 아버지의 여가생활과 정보제공이 높은 것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났다. 이는 차후 학교와 직장의 5일제 수업 및 근무가 동시에 실시될 경우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증가할 것이고 특히 여가생활과 정보제공 측면에서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가족이 함께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에 대한 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양육참여 영역을 살펴본 결과 성별과 자아존중감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여가생활은 남학생의 가정적 자아를 제외한 나머지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학업 자아 및 가정적 자아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와 다르게 활동적이고 여가 중심으로 이뤄지는 아버지 양육참여(Way & Gillman, 2000)가 궁극적으로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시사해 준다. 또한 아버지의 여가생활 참여는 남녀 청소년의 학업자아, 남학생의 교사관련 자아의 발달에 그리고 정보제공도 남녀 청소년의 학업자아 및 여학생의 교사관련 자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났다. 이는 학업 및 학교생활을 통해 발달하는 학업자아와 교사관련 자아의 발달에 아버지 양육참여 중에서도 정보제공과 여가생활이 미치는 영향이 큼을 시사해 준다. 또한 NCES(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 1997)의 보고에 의하면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많은 아동은 부모와 교육적 활동(유적지 및 박물관 관람)을 많이 할뿐만 아니라 집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정보를 얻기 쉬워 학교성공과 학업동기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봄으로(Flouri, Buchanan, & Bream, 2002, 재인용) 자녀의 성적 향상과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여가생활 및 정보제공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버지의 물적지원은 남녀 청소년의 가정적 자아의 발달만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의 생일, 용돈, 기호품을 챙겨주는 등의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가정적 자아의 발달에는 영향을 미치나 다른 자아존중감 영역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시사해 준다. 오히려 같이 식사를 하고 TV를 시청하며 얘기를 주고 받는

아버지와 자녀간의 일상생활이 남학생의 가정적 자아, 여학생의 친구관련 자아, 신체능력자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함께 공유하는 생활이 자아존중감 발달에 기여하는 바가 아버지의 물적지원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아버지의 양육참여 영역 중 전통전수와 훈육이 남학생의 친구관련 자아와 신체능력 자아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전통적인 아버지 역할상으로 강조된 가계의 계승자 및 훈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상이 남학생의 일부 자아존중감 발달에만 기여하고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기여하기 어려움을 나타낸다. 따라서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버지 역할상에 대한 모색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구성하는 모든 영역이 남학생의 자아존중감 영역들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여가생활과 학업지원은 남학생의 자아존중감 중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훈육과 전통전수를 제외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영역이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영역들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정보제공과 일상생활은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중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자녀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새로운 아버지 역할 상을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남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는 전통적 아버지 역할상을 유지하면서 자녀와 많은 여가생활을 함께 하면서 자녀의 학업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여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는 전통적 아버지 역할 상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자녀에게 정보제공을 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자녀를 둔 한국 아버지의 양육

참여의 정도는 다음과 같은 변인에 따라 양육참여 하위영역별로 차이가 있다. 청소년의 성별, 학년, 형제성별구성, 형제수, 부와 접촉유형 및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 그리고 아버지의 교육수준, 직업유형, 아버지직장의 주 5일제 실시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가정형편, 어머니 직장의 퇴근 방식 및 휴무방식 등에 따라서도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어머니 취업유무, 아버지 직장의 퇴근방식 및 휴무방식에 따른 차이는 없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 각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양육참여 영역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 영역 중 전통전수와 훈육은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나머지 여가생활, 정보제공, 일상생활, 학업 지원은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남학생의 자아존중감 발달에는 아버지의 여가생활 및 학업지원이 중요하고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발달에는 일상생활과 정보제공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초기 청소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개발된 아버지의 양육참여 척도를 사용하여 아버지 양육참여의 정도를 다양한 변인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현재 한국 가정의 아버지 양육참여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 점과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영역을 밝힘으로써 자녀의 성별을 고려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방향을 제시해 준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편의표집으로 표본을 추출한 연구의 제한점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아버지 양육참여의 영향을 밝히기 위해 종단적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참고 문헌

- 강란혜(2000). 한국과 일본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의 비교 : 직업관과 자녀관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1(2), 119-133.
- 강란혜 · 相良順子(1998). 한국과 일본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양육참여행동과의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137-49.
- 김광용 · 이인수(1998).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 · 정서적 능력. *아동학회지*, 19(2), 65-75.
- 김보금 · 송순(2002).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역할수행 정도와 기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2), 17-33.
- 김석우 · 최용석(2001). 인과모형의 이해와 활용. 서울 : 학지사.
- 김해식(1987). SPSS. 서울 : 박영사.
- 김희화(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 : 환경변인 및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화(2005). 중학생 자녀를 둔 한국 아버지의 양육참여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6(1), 107-121.
- 노동부(2001).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 박선영 · 도현심(1998).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1), 229-244.
- 손미리(1997).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희옥(1997).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내적 · 외적 문제행동의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동학회지*, 18(1), 39-52.
- 양미경(1996).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도와 부모역할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87-101.
- 양장애(1999).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관한 탐색적 연구 I : 아버지의 역할참여와 아동의 성역할지향. *아동학회지*, 20(1), 135-145.
- 오미경(1990). 아버지의 자녀양육 역할수행정도와의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 석사학위논문.
- 윤서영(1999).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연환(2001). 생산적인 아버지노릇과 유아의 애착 안정성의 발달적 결과 : 단기종단적 연구. *아동학회지*, 22(2), 65-76.
- 정문자(1987). 발달주기에 따른 아버지 역할. *아동학회지*, 8(2), 107-115.
- 정현희 · 최경순(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성역할, 정서반응,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6(1), 33-47.
- 정희욱(2003). 초·중·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와의 관계. *청소년학 연구*, 10(4), 443-458.
- 조선화(1998). 아버지 만족감 및 스트레스와 아버지 역할수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경순(1991).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 *부산여대논문집*, 제31집, 247-270.
-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2003).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경감 방안연구.
- 허선자(1992). 아버지의 역할지각 및 양육참여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hmeduzzaman, M., & Roopnarine, J. L.(1992). Sociodemographic factors, functioning style, social support, and fathers' involvement with preschoolers in African-America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699-707.
- Barnes, H. L., & Olson, D. H.(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Barnett, R. C., & Baruch, G. B.(1987).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29-40.
- Cabrera, N. J., Tamis-LeMonda, C., S., Bradley, R. U., Hofferth, S., & Lamb, M. E.(2000). Fatherhood in the twenty-first century. *Child Development*, 71(1), 127-136.
- Cooney, T. M., Pederson, F. A., Indelicato, S., & Palkovitz, R.(1993). Timing of fatherhood : is "on-time" optimal?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 205-215.
- Culp, R E., Schadle, S., Robinson, L., & Culp, A. M. (2000). Relationships among paternal involvement and young children's perceived self-competence and behavioral problem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9(1), 27-38.
- DeLuccie, A., & Davis, A.(1991). Do men's adult life concerns affect their fathering orientations? *Journal of Psychology*, 125, 175-188.
- Dix, T., Ruble, D. N., Grusec, J. E., & Nixon, S. (1986). Social cognition in parents : inferential and affective reactions to children of three age levels. *Child Development*, 57, 879-894.
- Flouri, E., Buchanan, A., & Bream, V.(2002).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fathers' involvement : significance to school attitudes. *Psychology in the Schools*, 39(5), 575-582.
- Flouri, E., & Buchanan, A.(2003). What predicts fathers' involvement with their children? A prospective study of intact familie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1, 81-98.
- Huston, A. C.(1983). Sex typing. In E.M. Hetherington (Ed.) & P. H. Mussen(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Vol. 4, pp.387-468). New York : Wiley.
- Ishii-Kuntz, M.(1994). Paternal involvement and perception toward father's role : a comparison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Issues*, 15, 30-48.
- Laursen, B., Coy, K. C., & Collins, W. A(1998). Reconsidering changes in parent-child conflict across adolescence : A meta-analysis. *Child Development*, 69(3), 817-832.

- Marcotte, D., Fortin, L., Potvin, P., & Papillon, M. (2002). Gender difference in depressive symptoms during adolescence : role of gender-typed characteristics, self-esteem, body image, stress life events, and pubertal statu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10(1)*, 29-42.
- Morman, M. T., & Floyd, K.(2002). A “hanging of fatherhood” effects on affectionate communication, closeness, and satisfaction in men’s relationships with their fathers and their sons. *Western Journal of Communication, 66(4)*, 395-411.
- Pleck, J. H.(1997). Paternal involvement : levels, sources, and consequences. In M. E. Lamb,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3rd)*(pp.66-103). John Wiley & Sons, Inc.
- Rosenberg, M., Schooler, C., Schoenbach, C., & Rosenberg, F.(1995). Global self-esteem and specific self-esteem : different concepts, different outcom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141-156.
- Shek, D. T .L.(2000). Chinese adolescents’ perceptions of parental differences in parenting characteristics,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Adolescence, 35*, 135-146.
- Tucker, C. J., McHale, S. M., & Crouter, A. C.(2003). Dimensions of mothers’ and fathers’ differential treatment of siblings : links with adolescents’ sex-typed personal qualities. *Family Relations, 52*, 82-89.
- Way, N., & Gillman, D. A.(2000). Early adolescent girl’s perceptions of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fathers : a qualitative investigation.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3)*, 309-331.
- Young Jr., G. A., & Rathge, R.(1990). Adolescent stress and self-esteem. *Adolescence, 25(98)*, 333-341.

2005년 6월 30일 투고 : 2005년 8월 29일 채택